



영화 '미나리'와 오버랩 된 주역들의 가족사 화제만발

- 1 미국 이주·이혼 후 두 아들 키우던 윤여정
- 2 농장 꿈꾼 부친, 정이삭 감독 영화에 투영
- 3 한국계 미국인 정체성 혼란 겪은 스티븐 연
- 4 모성 연기 한예리 "어머니의 힘든 삶 생각"

"단역부터 다시 시작했다. 새끼들을 먹여 살리고 교육시켜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남편과 이혼하고 무대로 되돌아왔지만, 10여년 세월의 간극은 어쩔 수 없었다. 화려한 주인공 자리를 되찾지 못했다. 대신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가리지 않고 다" 했다.

배우 윤여정이 2017년 tvN '택시' 등에 출연해 털어놓은 이야기이다. 1973년 가수 조영남과 미국으로 떠나 이듬해

결혼했지만 11년 만에 이혼한 그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일에 매달렸다.

"절실했을 때 내가 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그 한 지점에서 이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개봉한 영화 '미나리'의 할머니 역으로 미국에서 무려 27개의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4월 아카데미상 후보 선정과 수상 전망까지도 날고 있다. 그의 두 아들은 건실한 청년으로 자라나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 "일하기 바빠 엄마의 밥을 제대로 못 해준 것이 너무 미안"할 뿐인 그는 "그러나 다른 것은 뜻밖이다"며 자신의 일에만 매달려 온 수십 년 세월의 보람을 안게 됐다.

고단했을 삶의 단면은 영화 '미나리'에 깊게 스며들었다. 그는 미국 주간지 옵서버 인터뷰에서 "극중 캐릭터에 내가 아홉, 열 살 때쯤 돌아가신 증조할머니를 떠올렸다.

'미나리'의 손자처럼 나도 증조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다. 더럽다고 싫어했다. 정말 어려서였다"고 돌아섰다.

#이민자의 삶, 그들의 꿈

그처럼 살아온 나남은 또 다른 주역들의 것이기도 하다. '미나리'의 연출자 정이삭 감독과 주연 스티븐 연 그리고 한예리 역시 자신들의 삶을 작품 속에 녹여냈다. 1980년대 팍팍한 땅에 상추와 고추 등 한국 채소를 심으며 농장을 일궈 가려는 미국 이민 한인가족의 이야기는 이들 주역들의 실제 삶과도 닮아 있다.

농장을 꿈꿨던 이민자 아버지를 따라 미국 아칸소주 링컨에서 자라난 정이삭 감독은 '미나리' 속 손자에게 자신의 어린시절을 투영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영화 '미나리'가 개봉 첫 날인 3일에만 4만여 명을 동원하며 관객을 사로잡고 있다. 사진은 영화의 주역인 배우 한예리·스티븐 연·정이삭 감독·노엘 조·엘런 김·윤여정(맨 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편씨네마



스포츠동아

2021년 3월 5일 금요일

www.sportsdonga.com

23.3세·파이어볼... '용꿈 꾸는' LG 필승조 3총사

(평균 나이)



LG 고우석, 정우영, 이정용(왼쪽부터)은 2021시즌 팀의 필승조로 활약할 볼펜의 기둥들이다. 이들 3명 모두 빠른 공을 지닌 데다 평균 나이도 23.3세로 젊어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포츠동아DB

고우석·정우영 최연소 클로저·셋업맨 재할성공 이정용 NC와 연습경기 3K 150km대~140km대 후반...구속 '짱' 세 명 모두 최고의 몸 상태 자신만만

빠른 공으로 무장한 젊은 투수들이 내구성까지 갖췄다. 아직 보지 구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평가. 다른 어느 구단에 견줘도 부족함이 없는 LG 트윈스의 필승, 특히 볼펜 필승조에서 그 힘이 발휘될 전망이다. 중심에는 고우석(23), 정우영(22), 이정용(25)이 있다.

LG는 2일과 3일 창원 NC 다이노스와 연습경기에서 모두 승리했다. 연습경기의 특성상 승패가 중요하진 않다. 그러나 볼펜 파이어볼러들의 잠재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정용은 2일 경기 9-8로 앞선 9회말 마운드에 올라 1이닝 3삼진 퍼펙트 투구로 류지현 감독의 첫 승을 마무리했다. 고우석은 이틀날 3-2로 앞선 9회초 등판해 2안타를 허용했지만 무실점으로 승리를 지켰다. 아직 실전등판을 소화하지 않은 정우영은 4일 김해 상동구장에서 올해 첫 라이브피칭을 진행했고, 25구를 던졌다.

고우석과 정우영은 각각 KBO리그 최연소 클로저와 셋업맨이다. 고우석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마무리투수를 맡아 2년간 52세이브를 챙겼다. 2019년 입단한 정우영도 2년간 36홀드6세이브를 올리며 LG의 8회를 책임졌다. 정우영은 140km대 후반, 고우석은 150km대 중반의 속구로 무장한 강속

구 투수다.

이미 든든한 두 축에 이정용이 가세한다. 정우영의 입단 동기인 이정용은 입단 직후 팔꿈치 인대접합수술을 받았다. 이를 악물고 재활에 성공했고, 지난해 7월 처음 1군 무대에 올랐다. 3승4홀드, 평균자책점(ERA) 3.71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차명석 LG 단장은 "특별히 이닝제한을 생각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류지현 LG 감독도 "트레이닝파트에서 면밀히 체크했는데 올 시즌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전달받았다. 올 시즌 마운드에 큰 힘이 될 자원"이라고 말했다.

이정용은 2일 등판을 마친 뒤 "올해는 150km 이상 던지겠다는 마음이다. 아마추어 때보다 지금 몸 상태가 더 좋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고우석도 "아직 구위가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고는 있다. 몸 상태도 좋다"고 자평했다. 정우영은 라이브피칭을 마친 뒤 "오랜만에 타자들을 세워놓고 투구를 했는데 컨디션이 좋았다. 몸 상태가 좋지만 천천히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차 단장은 부임 직후부터 선수단 육성의 근간인 '팜(farm)' 보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스카우트 과정부터 뜯어고쳤고, 양질의 유망주들을 긴 호흡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했다. 이제 LG의 필승조는 타 구단에서 부러움을 감추지 않을 정도다. 차 단장은 젊은 필승조들에 대해 "우선 스카우트 파트에서 고생했다. 류지현 감독님께서 프런트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망주들의 적극적인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LG 유망주 육성 성공의 증거가 볼펜에 있다.

상동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CJ CHEILJEDANG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소팔메토

- 기능성 원료인 소팔메토의 인체시험 결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증가, 야뇨/소변속도 개선, 남성 삶의 질 개선 확인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프리미엄 원료 사용

10년 연속 판매 1위

NO. 1

Returnup 리턴업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소팔메토 열매추출물, 비타민 B군 4종, 셀레늄, 아연

건강기능식품 30g(500mg X 60캡슐)

Returnup 리턴업

나의 건강 리턴업

1회분량 당 함유: 열매 0.1g, 셀레늄 0.010mg, 비타민 B1 0.1mg, 비타민 B2 0.1mg, 비타민 B6 0.1mg, 비타민 B12 0.1mg, 아연 0.1mg, 소팔메토 열매추출물 1.4mg, 인산 2.4mg, 아연 4.05mg (58%), 셀레늄 30μg (65%)

※()안의 수치는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관정섭취량 및 섭취방법 1X(♂+♀)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CJ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맨케어파워 옥타코사놀 3개월분 증정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22-9988